

ĞŦŦŦ ĨPŦMŦ 박사Æ 시편Æ 강의 Ć

© 2024 프레드 퍼트넘(Fred Putnam)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시편 4편의 두 번째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Dr. Fred Putnam입니다. 프레드 퍼트넘 박사.

우리의 첫 번째 강의에서 여러분은 아마도 내가 시편이라는 단어와 함께 시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하고 심지어 성경의 시인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요즘 그게 큰 질문이에요. 아마도 지난 25년 동안 성경에 시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우리가 시편과 다른 시적 구절을 읽는 방식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잠시 논의하고 우선 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둘째, 시편과 다른 성경 구절들은 정말로 시적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물어보세요.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은 시란 무엇인가? 글썄요, 당신은 작가를 찾는 만큼 다양한 방법으로 그것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버트 프로스트(Robert Frost)는 위대한 시를 잘 읽는 사람은 자신이 그 시를 읽는 순간, 자신이 결코 회복할 수 없는 불멸의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Emily Dickinson은 당신이 나에게 시가 무엇인지, 그것이 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묻는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머리 꼭대기가 벗겨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나 너무 추워서 어떤 불도 나를 따뜻하게 할 수 없다면 그것이 시라고 대답합니다. 다른 방법이 있나요? 그리고 이와 같은 다른 정의도 많이 있는데, 시나 텍스트가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를 정의하는 일종의 접근 방식입니다. 시인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하고, 그러면 시인 것 같아요. 그것을 정의하는 두 번째 방법은 저자의 의도를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대 시에서 더 일반적으로 시를 읽습니다. 아마도 새로운 비평인 TS Eliot, 2차 세계 대전 이후, 1차 세계 대전 이후부터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단지 재배열된 산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이지에서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실제로 유명한 야구 아나운서가 있습니다. 나는 뉴잉글랜드 출신이므로 양키스를 응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레드삭스가 내 속도에 더 가깝습니다.

하지만 필 리주토(Phil Rizzuto)는 뉴욕 양키스의 해설자이자 플레이 해설자였습니다. 그리고 약 10년 전, 두 남자가 그의 실황 해설 사본을 가져다가 작은 부분을 잘라내어 페이지에 다시 배열한 다음 시집으로 팔았습니다. 이제 Phil Rizzuto는 시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를 만들거나 시인이 될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것이 그것들을 시로 만드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것이 시라고 해서 그것이 시가 되는 걸까요? 그래서 두 번째 요점, 즉 두 번째 접근 방식은 저자의 의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작가가 시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다. 첫째,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좀 더 중립적이고 과학적인 시를 정의하는 세 번째 방법은, 그 단어가 시에 적용되어야 한다면 우리는 수사적 장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시를 인식한다고 말합니다. 조금 후에는 모든 언어에서 사용되지만 시에서는 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시는 압축된 언어입니다. 그것은 모든 단어가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암시하는 것, 소리가 나는 것, 다른 단어와 어울리는 것, 시의 분위기에 맞는 것 등을 고려하여 모든 단어가 선택되는 언어입니다. 시의 한 지점에 대해 저자는 여기에 가장 적합한 단어를 선택합니다. 사실, 매우 흥미로운 실험은 온라인에 접속하는 것입니다. 제1차 세계 대전 영국 시인이었던 Wilfred Owen의 시를 전담하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를 읽으면 그 사람이 그 모습 그대로인 것처럼 들립니다. 산문을 재배치하고, 그 일부가 시적으로 들리지만, 마치 문단을 약간 잘라서 깎둑썰기한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웹사이트에 실제로 그의 원고 사진이 있는 원고를 보면 그가 줄을 쓰고 줄을 그어 지웠으며 어떤 줄은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단지 산문을 쓰고 있을 뿐이고, 각 자리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를 찾기 위해 매우 애쓰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가 단어를 선택하는 방식을 보고 그가 자신의 글을 얼마나 촘촘하게 포장했는지 볼 때, 우리는 이것이 시적으로 들리는 글조차 그렇지 않은 방식의 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에이브러햄 링컨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이 끝났다고 말할 것입니다. 링컨은 모든 사람을 향한 자비로, 어느 누구에게도 악의를 품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옳은 것을 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대로 옳은 일을 하겠다는 결의로 말했습니다. 즉 윈스턴 처칠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피, 땀, 눈물 외에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해변에서 그들과 싸울 것이고, 길가에서 그들과 싸울 것이며, 마을에서 그들과 싸울 것입니다. 그게 시인가요? 글썄, 그것은 확실히 매우 시적으로 들리지만 그들은 시를 쓸 의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작품 전체, 연설 전체, 에세이 전체, 그 밖의 무엇이든 시가 아닙니다.

하나로 제시되지도 않고, 하나로 쓰여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호작용이 실제로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고, 하나는 작가의 의도이며, 세 번째는 언어 자체가 사용되는 방식이다.

실제로 유명한 문학평론가이자 구조철학자인 로만 야콥슨(Roman Jakobson)은 시, 즉 언어의 시적 기능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가 말했듯이 일곱 번째 기능인 그는 지식을 전달하고 누군가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언어의 7가지 기본 기능을 식별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다, 누군가에게 어떤 느낌을 주다, 등등

. 그러나 그는 시적 기능은 언어 자체에 초점을 맞춰서 시인이 논문을 쓰는 사람보다 훨씬 더 의도적으로 단어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의도적으로 단어를 선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며 Jakobson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시인만이 단어를 신중하게 선택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그러한 선택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훨씬 더 중요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의미가 단순히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나 구나 문장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암시하는 것, 즉 그가 그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들어오는 다른 연관성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초대하거나 누군가를 당신의 집에 저녁 식사에 초대한다면, 당신은 "우리 집에 들어보는 게 어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리 와서 우리의 새로운 성을 방문하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일종의 오두막집이지만 어쨌든 천만에요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장소(place), 성(castle), 오두막집(hovel)은 세 가지 매우 다른 단어이며, 세 가지 매우 다른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이 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상대방은 당신이 농담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고, 그들은 당신이 해자로 둘러싸인 돌로 지어진 곳에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용과 던전과 그 모든 것. 하지만 그들은 당신이 방금 큰 새 집을 구입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신은 그것에 대해 흥분했거나 뭔가를 바꿨습니다. 하지만 내 오두막집이라고 하면 확실히 우리 대부분에게는 별로 긍정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Sani 물티슈를 좀 가져가야 할까요? 아니면 내가 감히 여기에 갈 필요가 있습니까? 이 사람이 주는 것을 내가 먹고 싶은가? 장소라는 용어는 매우 무해합니다.

실제로는 전혀 많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마도 연관성이 가장 적고 연관성이 가장 적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들은 자신 의 연상을 위해 끊임없이 단어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시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19세기 기독교 시인 크리스티나 로세티(Christina Rossetti)가 쓴 것입니다. 이렇게 4줄입니다.

그녀가 쓴 동화책인 노래 노래(Sing Song)라는 책에서 따온 것입니다. 무거운 것은 무엇입니까? 바다 모래와 슬픔. 간략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과 내일.

연약한 것은 무엇입니까? 봄꽃과 젊음. 깊은 것은 무엇입니까? 크리스티나 로세티의 바다와 진실. 그녀는 무엇을 했나요? 글썄요, 우선, 그것은 제게는 아이들을 위한 시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어쩌면 아주 사려 깊은 아이들이나 여러분이 사려깊기를 원하는 아이들을 위한 시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여러 가지 일을 해왔습니다. 첫째, 각 줄에는 동일한 패턴, 질문 및 답변이 있습니다. 각 답변에는 동일한 패턴, 두 개의 다른 명사가 있습니다.

각 줄은 동일한 두 단어인 what is로 시작됩니다. 운율이 있고, 슬픔이 있고, 내일이 있고, 젊음이 있고, 진실이 있습니다. 미터가 있는데 뭐가 무거워요? 바다 모래와 슬픔.

간략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과 내일 등등. 그리고 이런 이미지도 있습니다. 이것을 주목하세요. 바다 모래는 물리적인 것입니다.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 있기 때문에 오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내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봄꽃은 물질적인 것입니다. 젊음은 품질이 아닙니다. 바다도 물리적인 것입니다.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우리가 아나포라(anaphora)라고 부르는 소리는 여러 줄이 동일한 단어나 표현으로 시작하는 경우, 즉 반복, 즉 패턴, 두 단어로 된 답변이 있는 질문, 운율, 이미지입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매우 간단한 아이디어를 취했고, 슬픔은 정말 어려울 수 있다는 식의 말을 했을 때보다 훨씬 더 깊이 공감하게 만들었습니다. 인생은 짧고 사실 청춘들처럼 연약한 편이다. 그리고 바다는 정말 깊습니다.

내 말은, 진실은 정말 깊다는 거죠. 그녀는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글썄, 차이점은 언어의 패턴화, 언어의 압축, 그녀가 사용하는 그림이 그것을 일련의 매우 진부하고 심지어 진부한 진술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어떤 언어보다 훨씬 더 깊이 소통하는 사고 방식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4점 개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와 산문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사기를 살펴보면 사사기 4장과 5장에서 매우 친숙한 구절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사기 4장은 드보라와 바락의 이야기이며, 가나안의 왕이자 그의 장군인 키케로 또는 야빈과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5장에는 같은 사건에 관한 시, 즉 그날 드보라와 바락이 불렀던 노래가 나옵니다. 저는 이 두 장의 몇 구절을 읽고 어느 것이 시이고 어느 것이 산문 서술인지 알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때 장군 키케로는 목숨을 걸고 도망치다가 텐트를 보고 야엘이라는 여자에게 가서 자신을 보호해 달라고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사기 4:18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그녀를 향해 천막 안으로 돌아섰다. 그녀는 그를 천, 양탄자, 담요 등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녀에게 말했다, 내가 목마르니까 마실 물을 조금 주십시오.

그래서 그녀는 우유가 담긴 용기를 열어서 그에게 마실 것을 주고 그에게 덮어 주었습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장막 문에 서서 만일 사람이 와서 네게 묻기를 여기 너희가 아니할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야엘 헤베르의 아내가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망치를 들고 몰래 갔더라 그에게 가서 그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으매 그것이 땅에 박혔으니 이는 그가 깊이 잠들어 지쳐 있었음이라. 그래서 그는 죽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계정입니다. 여기 다른 계정이 있습니다. 여인 중에 가장 복된 사람은 가나안 사람 헤베르의 아내 야엘이다.

장막 안의 여인들 중에 그 여인이 가장 복되도다. 그는 물을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우유를 주었다.

웅장한 그릇에 그녀는 그에게 응유를 가져 왔습니다. 그녀는 텐트 말뚝을 잡으려고 손을 내밀었고 오른손으로는 일꾼의 망치를 잡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Cicero를 때렸습니다.

그녀는 그의 머리를 박살냈다. 그녀는 산산조각이 나고 그의 관자놀이를 뚫었습니다. 그녀의 발 사이에 그는 몸을 굽히고, 넘어지고, 누워 있습니다.

그녀의 발 사이에서 그는 몸을 숙이고 넘어졌다. 그가 절한 곳에서 그는 쓰러져 멸망했습니다. 완전히 똑같은 소리는 아닌 것 같죠? 동일한 사건을 설명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는 두 가지 매우 다른 방식을 설명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뭐라고 부를까요? 그리고 성경에 시가 있는지에 대해 논쟁을 벌이는 사람들은 두 번째는 우리가 그 고급 언어를 부를 것이라는 점을 말하고 싶어합니다. 글썄, 만약 당신이 그것을 용어로 표현한다면, 고급 언어는 확실히 훨씬 더 시적으로 들리거나 적어도 시와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압축, 이미지의 사용, 히브리어로 이러한 반복은 매우 표준적인 것입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성경 시에서는 매우 일반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더 정확한 그림이 무엇인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내러티브는 우리에게 실제 이야기를 말해주고 시는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예술적 해석을 제공합니다. 아시다시피, 제 생각에 그것은 때때로 성경에 시가 들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주저하는 이유 중 하나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적 자유라는 단어를 듣거나 셰익스피어가 말했듯이 모든 시인은 거짓말쟁이라고 여러 번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인들이 실제로는 꽤 올바른 방식으로 다루지 않는다는 은밀한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Dragnet과 같은 사실을 원합니다. 그러나 사사기 4장과 5장을 모두 읽고, 공통점을 강조해 보면 공통점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실제 진술입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의 대부분은 고유명사와 지명, 영어 번역의 관사, the, 또는 a, an, or Something과 같은 것입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되는 사건은 거의 없으며, 한 부분에서는 설명되고 다른 부분에서는 완전히 생략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의 5장 마지막 부분에는 카이사르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어디 있는지 궁금해하고 하인이 '아, 그러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녀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는 많은 전리품과 전리품을 가지고 올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글쎄요, 4장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나요? 아니면 드보라와 바락이 그냥 꾸며낸 말입니까? 우선, 우리는 성경을 신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그들이 이것을 묘사한다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계시하셨거나 그들이 가나안 사람 을 사로잡았을 때 그가 말했습니다. 예, 아마도 지금 궁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거나 그와 비슷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보를 얻었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래, 그럴 거야'라고 말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레이, 두 이야기의 차이점은 어느 것이 더 정확한 설명인가요, 아니면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주는 것이 무엇인가요? 사실 대답은 둘 다 그렇습니다. 단지 그들이 동일한 사건을 두 가지 매우 다른 방식으로 보는 것뿐입니다.

이것은 공정한 비교가 아닙니다. 좋아요. 그러니 제가 말하려는 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종교 개혁에 관한 역사 교과서를 쓰는 사람과 그 교과서를 공부하는 학생, 그리고 영화를 보러 가는 학생, 마틴 루터의 차이는 다릅니다.

이제 영화는 같은 내용을 전달합니다. 물론 저는 영화를 통해 라이선스, 예술적 라이선스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시에 대해서도 긴장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똑같은 거죠, 그렇죠? 글쎄, 당신은 그것을 정말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 말이 맞아요. 영화의 모든 것, 심지어 이 내용 중 일부는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허구입니다.

대화가 구성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교과서는 한 가지 방식으로 소통한다.

x, y, z 양의 정보를 가능한 한 적은 단어로 전달하여 교과서 출판사가 책당 최대한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짧지만 모든 정보가 담겨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은 시험 합격, 졸업, 취업 등에 필요한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영화 내내 앉아서 극장을 떠나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은 그것을보고 싶어하고 그것을 즐길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떠날 것이고, 아마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교과서는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 별로 신경쓰지 않습니다.

교과서의 목표는 이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당신에게 줄 것입니다. 영화는 내가 당신을 즐겁게 해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사기 4장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기에 전투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초점은 Barak의 역할과 그의 순종 또는 그의 순종에 대한 주저함과 Yael의 역할에 있습니다. 다음은 같은 전투에 관한 시입니다.

이 시의 초점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전쟁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않은 방식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로 다니며 그들이 에브라임에서 내려왔다고 말하는 긴 목록이 있습니다. 벤자민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말합니다. “잠깐만요. 르우벤이 안 왔어요.” 길르앗 지파들은 요단강 건너편에 머물렀습니다. 댄은 그들이 있던 곳에 머물렀다.

Asher는 그들이 있던 곳에 머물렀다. 그러나 스불론과 납달리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4장에서 읽은 것은 바락이 길보아 산과 다불 산에 올라갔고 이 사람들이 모두 그를 따라왔다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말하는 전부입니다. 마찬가지로 5장에서는 별들도 하늘에서 싸웠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제 4장에서는 주님께서 바락 앞에서 칼날로 카이사르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군대를 패주시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카이사르는 마차에서 내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병거들이 실제로는 아주 작은 개울에 넘쳐 강둑에 넘쳐 땅이 진흙탕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병거들, 즉 철 병거 500대가 수렁에 빠져 더 이상 유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불리한 점이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병거를 사용하여 이스라엘 보병들을 압도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갑자기 그들의 이점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전투 전략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똑똑한 사령관인 카이사르는 이를 지켜보며 그것이 재앙이라는 것을 알고 목숨을 걸고 도망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산문 설명에서 그것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인, 가수, 성가, 데보라와 바락은 사사기의 나머지 부분을 쓴 저자의 관점과는 매우 다른 이러한 사건에 대한 그들의 경험에 대한 관점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리고 두 계정은 서로를 보완합니다.

그들은 함께 일하며 서로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위해 일합니다. 그것은 시의 또 다른 측면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입니다. 이 이론은 필립 시드니 경이 시를 옹호했던 때로부터 약 6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는 시인이 실제로 황금의 세계를 창조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신이 수학자, 천문학자, 화학자라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일해야 합니다.

별이나 화학물질, 원소 등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당신은 거기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작업하면 됩니다. 그러나 시인으로서는 그는 황금의 세계를 창조하게 된다.

그리고 이 시는 시인이 창조한 이 세계로 독자를 초대합니다. 이제 시인은 이것이 우주 전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별개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시는 진실을 전달하지만 설명적인 산문이나 일련의 명제에 대한 논리적 의미와는 다른 방식으로 진실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도 전체 진실을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시편을 읽고 몇 분 후에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편 121편과 같은 시편을 읽으면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니 나의 소망이 어디서 오느냐? 등등. 이 시편은 주님께 속한 사람에게는 나쁜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 자신에게 생각하면서 떠나기 쉬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너를 지키시는 이가 너의 발을 실족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는 잠들지 않을 것이다. 그분은 당신의 오른편에 있는 당신의 그늘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당신이 밖에 나가는 것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부터 영원히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속한 사람에게는 나쁜 일이 전혀 일어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신학 전체를 묘사하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그는 단지 8절, 즉 15행으로만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포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주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이렇게 생각해보자고 그는 말합니다. 예, 다른 것들도 모두 존재합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다른 것들은 모두 존재해요. 그리고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편이 많이 있습니다. 즉, 재난 가운데 있지 않다면 주님께 재난에서 구해 달라고 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시인이 말하기를, 물이 내 목까지 차오른다, 물이 나를 거의 쓸어갈 뻔했다 등등. 글썄요, 그는 그런 것들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가 하고 싶은 것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파수꾼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할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겼나요? 그래서 그는 그것에 대해 묵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깊게 읽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시인이 자신의 시를 압축하거나 메시지를 압축한 방식과 그 시에 의미를 어떻게 담았는지 모든 방법을 찾아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시가 우리에게 모든 것에 대해 모든 것을 말하려고 한다고 가정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 대신,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말했듯이, 현실의 어떤 측면, 주님, 그분과 우리의 관계, 세상, 다른 사람들과 우리의 관계 등을 가지고 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된 시에 대해 생각할 때, 저는 잠시 영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시로 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모두가 신학에 대해 논쟁하고 싶어한다는 것을 가르치면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영어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시가 페이지의 레이아웃과 연으로 나누어진 리듬과 운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를 인식합니다.

문장이 있을 수 있지만 문장은 줄 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것입니다.

성경 시에는 실제로 리듬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항상 논쟁을 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어로 생각하는 방식에는 실제로 리듬이 없습니다. 운율이 없습니다.

한두 번, 같은 소리로 끝나는 단어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패턴을 보는 것은 매우 매우 이례적입니다. 실제로 스탠자가 없습니다. 즉, 시집을 사면 빈 줄이 있으니 여덟 줄이 있고, 한 줄이 있고, 여덟 줄이 있고, 한 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말은, 당신은 영어 성경에서 그것들을 보게 될 것이지만 그것은 편집자의 결정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고에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번역자와 편집자이거나 어떤 경우에는 히브리어 성경의 편집자들이고 번역자들은 그것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 시에서 행 문장이 한 행에서 다음 행으로 이동하지 않고 페이지 아래로 계속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각 줄은 자체 절이나 문장으로 구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외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영어 시와 성경 시 사이에 꽤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본적인 유사점은 둘을 시적으로 만듭니다. 압축, 사용된 언어, 단어가 매우 의도적으로 선택되었다는 생각입니다.

거의 우리는 조작된 언어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 말은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이 그런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단어는 선택되었으며 언어는 매우 놀라운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히브리어를 공부하면, 혹은 이렇게 말해야 할지도 모르지만, 히브리어를 공부할 때 성경 이야기를 읽는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중간, 첫 학기 말, 심지어 첫 학기 중반쯤에는 요셉이나 아브라함 같은 이야기를 통해 자신만의 길을 개척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에게 '이게 왜 그렇게 재미있지?'라고 말하게 됩니다. 시편을 읽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편을 펴면 그것은 마치 다른 언어와 같습니다.

있어야 할 것들이 갑자기 없어 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것들은 예상했던 것처럼 보이거나 들리지 않습니다.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서 시에 관한 기사를 열면 시가 언어의 또 다른 용도라고 나온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일부 비평가들은 시적 언어가 그 문화의 언어 내에서 그 자체의 언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어가 있고, 그 다음에는 영시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단어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하기 전에, 내가 당신을 보기 전에, 또는 고풍스럽거나 오래되거나 종종 저녁에 들리는 단어 같은 종류의 것입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는 언어를 사용하고, 생각을 정리하고, 문장을 정리하고, 그림을 조합하는 모든 방식이 우리가 역사나 철학, 유기화학 책에서 찾을 수 있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는 정말로 매우 다른 언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의식적으로 조작되는 언어, 즉 시인 측에서 자의식을 갖고 있는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두 가지 모두에서 공통된 다른 것들을 발견합니다. 즉 par on amasia 또는 우리는 그것들을 말장난으로 생각하지만, 비슷하게 들리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서로를 반영하는 소리를 사용하면 영시는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 그게 바로 라임이죠? 슬픔과 내일, 젊음과 진실. 히브리어 시도 그런 일을 합니다.

물론 번역에서는 그 내용이 손실됩니다. 바로 번역 비용입니다. 둘 다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꽤 흔한 일입니다. 그리고 둘 다 한 줄씩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장이 선을 넘는 영시에서도 문제는 왜

문장이 선을 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멈추고 시작됩니까? 한 가지 질문은 왜 그것이 멈추었다가 시작되는가? 그리고 둘 다 이미지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사실, Molly Peacock이라는 여성이 쓴 『시를 읽고 시 모임을 시작하는 방법』이라는 놀라운 작은 책이 있습니다. 시 읽기 모임, 부제목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시와 씨름하고 그것이 말하는 내용을 알아내려고 노력할 때 그것이 매우 도움이 되는 열쇠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실제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는 책의 서로 다른 지점에서 세 가지 다른 것을 말합니다.

한 번은 시를 쪽 훑어보며 모든 명사를 나열하고, 시를 통해 모든 명사의 목록을 순서대로 작성하라고 하더군요. 언젠가 시편을 위해 그렇게 해보세요. 내 생각에 당신은 꽤 놀랄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시에 나오는 모든 동사를 나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사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명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동사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려줍니다.

모든 동사를 나열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때로는 일부 시와 명사가 도움이 될 것이고, 일부 시와 동사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녀가 말하는 것은 시를 훑어보고 그 시에 담긴 모든 이미지를 나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시인이 배열한 방식이므로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명사, 동사, 이미지의 관점에서 시를 통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연결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의 논리가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의식적인 언어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의미하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시 역시 마찬가지로 자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중 일부는 카메라를 통해 바로 이 소리가 들리는 것을 거의 들을 수 있습니다. '아, 잠깐만요. 이건 기술적인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제유와 은유, 직유와 아나포라 같은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중 일부는요. 그런데 기술적인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슈퍼볼을 보고 해설자가 이렇게 말한다면, 아, 저건 쿼터백 무승부였어, 기술적인 표현이지, 그렇지? 또는 올림픽을 시청하고 있는데 더블 악셀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말은, 그게 그들이 공중으로 뛰어올라 더블이나 다른 것에 비해 두 번 돌아갔다는 뜻이라는 걸 알아요.

그건 기술적인 언어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포츠나 심지어 음악에 관해서도 겁을 내지 않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관심 분야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다지오가 조금 너무 느리거나, 포르테가 조금 너무 부드럽거나, 포르티시모가 충분히 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공통 언어를 제공하며, 어쨌든 전문 용어와 내부 대화가 나오는 곳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사물을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짧은 나침반으로 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따라서 Water Heavy라는 시가 4행으로 시작하고 각 행이 같은 방식으로 시작한다고 말하는 것보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 전체 시는 비유적입니다. 단어를 절약하고 공간을 절약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 줄이 같은 방식으로 시작한다고 말할 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음, 대문자로 시작한다는 뜻인가요? 그것은 그들이 같은 단어, 같은 문구로 시작한다는 뜻인가요? 음, 아나포라는 우리가 말하는 것이 동일한 표현이라고 말해줍니다. 물론, 우리는 기술적인 언어를 사용하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공부하는 방식입니다.

사실 전문적인 언어는 우리가 이전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방식으로 성경의 시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비유적인 시편 113편과 같은 시편에서 야훼를 찬양하라, 야훼의 종들을 찬양하라, 야훼의 이름을 찬양하라, 다시 같은 말로 시작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은 '아, 아나포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왜 그랬을까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시의 의미와 관련하여 그 기능은 무엇입니까?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나요? 자, 여러분이 이미 눈치채셨을 수도 있는 부분은 제가 우리를 돕고, 제 자신을 돕고, 여러분이 시를 주의 깊게 읽는 법을 배우도록 돕는 데 매우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왜 그런 특정 방법을 사용하는지 생각함으로써 말하는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강요하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TS Eliot는 시 읽기에 관한 아주 유명한 에세이에서 우리가 줄타기를 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시를 한 번 읽고 감명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 그들은 "아, 그래, 알았어"라고 말하죠. 그 시는 x, y, z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편 23편을 읽고 '아, 위안이 되네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떠난다. 또 다른 접근 방식은 분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각 줄에는 몇 개의 단어가 있나요? 각 줄에는 몇 개의 음절이 있습니까? 몇 줄이 있나요? 왜, 어떻게, 모든 명사, 모든 동사, 모든 이미지를 나열하고 모든 것을 분석하고 모든 것에 기술 라벨을 할당합니다.

이제 Eliot는 이 두 가지 모두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첫째, 캐주얼한 인상이 잘못된 경우가 많다. 난 너에게 말할 수 있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설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본문을 공부한 것이 아니라 설교나 메시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언가를 읽고 다른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구절, 그 시편을 다이빙 보드처럼 사용하여 그들이 정말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종종 시편 자체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을 충분히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잘못 읽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텍스트를 읽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정도로 텍스트를 분석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단지 판에 고정하여 전시하기 위한 표본이 되도록 분석합니다. 나는 우리 교단의 안수위원회에 꽤 오랫동안 참여했고, 학생들로부터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성적과 심지어 그들이 논문에서 말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유능했던 학생들이 쓴 시편에 관한 논문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시편의 모든 것, 여러분이 논평하고 싶은 시편의 모든 시적 측면을 묘사했습니다. on은 일반적으로 히브리어와 영어로 기록되고 주석이 달렸으며 때로는 정말 야심적이라면 그리스어로도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왜 중요한지 알려주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시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 분석이 끝났습니다. 로마의 한 연설가인 초기 연설가 퀸틸리안은 분석에 갇혀 있는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TS Eliot는 그것이 한 가지 문제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것을 읽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과 제가 직면하는 어려움 중 하나는 교회에 가거나 성경 공부, 대학, 신학교에 가서 신학이나 종교, 성경을 공부해 왔다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의 의미, 욥기 6장의 실제 내용, 또는 다른 구절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시편 1편을 읽을 수 없게 됩니다 . 그 것은 실제 안경을 쓰거나 벗고 선글라스를 착용한 다음 또 다른 거울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눈알이 빠져서 그것을 읽으려고 노력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조금 과장된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이 방해가 되도록 내버려둡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을 읽고 설교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 논평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기숙사에서 황소세션을 하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목표 중 하나, 목표가 아닌 이유 중 하나, 동기 중 하나, 시의 모든 것을 매우 주의 깊게 읽고 주의를 기울이려고 노력하는 이유 중 하나는 시편 113편을 꼭 읽고 싶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런 인상을 갖고 떠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이 말한 것을 단순히 읽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옳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

그러나 시는 시인이 시를 쓸 때 아이디어를 가지고 노는 것처럼, 읽고, 생각하고, 우리 마음 속에서 연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성경을 접근할 때 성경의 목적이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라는 생각에 자주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확실히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는 알 수 없는 많은 정보를 성경을 통해 얻습니다. 예를 들어,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누구였습니까? 그것을 알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의 아들은 누구였나요? 그의 후손은 누구였습니까? 글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매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일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상당히 큰 성경입니다. 게다가 1600페이지 정도 된다.

글썄, 내 도서관에는 훨씬 더 작은 활자체로 페이지 수가 두 배 이상인 셰익스피어 사본이 있습니다. 윈스턴 처칠의 글을 다 뽑아내면 그 페이지가 몇 배나 된다. 성경은 실제로 세계 문학의 범위에서 볼 때 상당히 작은 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신다면 왜 이 책의 3분의 1을 시로 선택하셨을까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시가 다른 어떤 방식보다 어떤 것을 더 잘 전달하기 때문이라고 제안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즉 시의 사용이 고의적이고 신성한 영감을 받은 것이라면, 그것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 시를 사용하셨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시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거쳐 요한계시록까지, 사실 시는 그가 말하고 싶었던 것을 가장 잘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여기에 그 중요한 추진력이 있을 것입니다. 시가 언어를 사용하는 또 다른 방식이라면, 시가 현실에 대해 사유하는 또 다른 방식이라면, 우리는 그 언어도 사용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 시에서 발견되는 개념적 언어, 단어, 이미지, 사물을 하나로 묶는 방법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집어들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에 관한 진술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아요, 주님은 왕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요점을 알겠습니다. 그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게 전부라면 그것뿐일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 한 마디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는 12절, 13절, 15절, 30절을 계속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가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편 13편의 아나포라와 같은 시의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 이야기할 때, 오 주님, 언제까지 저에게서 멀리 계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얼굴을 숨길 건가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글썄,

어떤 시를 이해하는 것의 일부는 그것이 창조된 예술성을 감상하는 것입니다. 모차르트 소나타를 가장 잘 감상하는 사람은 실제로 피아노나 바이올린 등 무엇이든 연주해 본 사람입니다.

슈퍼볼에서 쿼터백 무승부를 가장 잘 감상하는 사람은 아마도 추수감사절에 가족과 함께 약간의 터치 풋볼을 해 본 사람일 것입니다. 어떤 시를 가장 잘 감상하는 사람은 시의 언어를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에서 그들은 너무나 잘 알려져서 각주조차 달지 않은 이 사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 해보면, 두 장의 종이를 가지고 가까운 마을이나 도시의 거리로 가십시오. 그 중 하나는 짧은 시가 있고 다른 하나는 짧은 문단이 있습니다. 10명을 멈춰서 다섯 명에게 물어보세요. 이 글을 읽어 주시겠습니까? 이 시를 소리내어 읽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한 후에, 그 단락을 읽어 보라고 하세요. 나머지 다섯 명은 문단을 먼저 읽고 그 다음 시를 읽도록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이 말하는 전부입니다. 이 시를 읽어 주시겠습니까? 이 단락을 큰 소리로 읽어 주시겠어요? 그 이상은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당신은 실험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100개 사례 중 99개 이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시를 읽고 있다는 것을 알면 목소리도 바뀌고, 자세도 바뀌고, 단어 발음도 바뀌고, 글을 읽는 사려 깊음도 바뀌는 사람.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예배 중에 Dr. Putnam이 읽은 것처럼 주의 깊게 시편을 낭독한 것이 언제였습니까? "무거운 것, 물이 무거운 것은 무엇입니까?" 로버트 프로스트의 『눈 내리는 저녁 숲가에 들러』를 읽을 때와 마찬가지로 사려깊게 시편이나 성경 시를 마지막으로 읽은 때는 언제였습니까? 나는 당신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목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정말로 시라면, 시에 대한 감상은 그것을 이해하는 것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감상할 수 있는 시의 언어를 생각하도록 우리 자신을 다시 가르쳐야 합니다.

이 사람은 시편에 관한 네 편의 두 번째 강의에서 Dr. Fred Putnam이었습니다.